벨로드롬 강타한 임채빈 신드롬

황인혁·성낙송 꺾고 특선급 도장깨기

특선급 입성 후 첫 세경주 휩쓸어
한바퀴 17초대 정통 선행 스타일
황제 정종진과 기량 대결 궁금증

14일 열린 제11회차 광명 6경주 특선급 결승에서 임채빈(3번)이 경륜계 넘버 2, 3위인 황인혁과 성낙송을 제치고 제일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임채빈은 이날 1년간의 공백기를 무색하게 할 만큼 폭발적인 기량을 과시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코로나19로 1년 넘게 움츠렸던 벨로드롬은 요즘 신성 임채빈(S2 25기 수성 30세)의 활약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3주 전인 12일 올 시즌 처음으로 광명스피돔 트랙에 나선 임채빈은 1년간의 공백과 신인이란 타이틀이 무색할만한 폭발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특선급 입성 후 처음 출전한 결승을 포함해 세 경주를(금토일) 말 그대로 휩쓴 것이다. 첫날 금요경주 상대가 2013 그랑프리 대상경륜 우승자 박병하였고 마지막 날은 현재 경륜계 넘버 2, 3위인 황인혁과 성낙송이었기에 돌풍의 충격은 더 컸다. 경기 내용도 압도적이었다. 3일 내리 한 바퀴 이상의 선행으로 버틴 것도 놀랍지만 비교적 쌀쌀한 날씨임에도 마지막 200m 랩타임이 모두 10초 대였으며 한 바퀴(333m) 기록도 17초 대였다.

경륜 원년인 1994년 1기부터 선수들을 지켜본 최강경륜의 박창현 발행인은 "이쯤 되면 가히 신드롬 수준이 아닐 수 없다"며 "초대형 스타 탄생과 동시에 당장 벨로드롬의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고 밝혔다. 그의 플레이가 어느 정도이기에 팬들은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

●지금까지 이런 선수는 없었다

임채빈은 국내 최초 세계 대회 단거리 입상자(2017 트랙 월드컵 동메달)답게 될성부른 떡잎이었다. 하지만 화려한 아마 경력자들도 지금까지 프로무대에서는 적잖은 적응 시기가 필요했다. 정종진이 정상에 오르기까지 4년 여의 시간이 필요했고 아마 최대어로 꼽히던 톱 스프린터 강동진은 본인은 물론 팬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끝에 아마추어로 회귀(경륜 은퇴)했다.

임채빈은 야구로 치면 타고난 정통파, 강속구 투수 유형이다. 아마 시절부터 선배들도 감당 못한 고기어에도 익숙했다. 대부분 낯설어하는 크로몰리 기반의 경륜용 자전거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원인이다. 타고난 힘에 실전까지 최적화된 선수인 셈이다.

임채빈은 상대를 크게 의식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상대를 이용해야 하는 경륜과 맞지 않는다고 우려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신 직구만 뿌려대도 쉽게 맞추는 상대가 없었다. 박병하, 황인혁, 성낙송을 상대로도 마찬가지였는데 '잡을 테면 잡아봐'란 식이었다. 복싱으로 치면 인파이터 스타일로 매우 공격적이고 화끈하며 상대가 누구든 정면 승부를 선호해 팬들이 열광한다.

●임채빈 vs 정종진 그리고 수도권

아직은 경륜 황제 정종진(SS 20기 김포 34세)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란 의견도 있다. 이제 막 입문한 임채빈에 비해 정종진이 쌓은 기록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표적인 것이 50연승과 하늘만 허락한다는 그랑프리 대상경주 4연패다.

물론 현시점에서 냉정히 기량을 논하자면 정종진의 우세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추입력은 정종진과 대등하다는 성낙송도 결승선을 앞두고 임채빈과의 거리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갈수록 더해지는 임채빈만의 강력한 종속 때문이다. 천하의 정종진이라도 만약 뒤에서 임채빈을 쫓는 상황이면 역전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래서 시간이 문제일 뿐 나이로 보나 성장 속도로 보나 전법으로 보나 결국은 '임채빈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경륜의 또 다른 볼거리는 지역 간 패권 다툼이다. 정종진이 그랑프리 대상경륜을 4년간 지배하는 동안 충청이나 영호남 어느 곳도 기를 펴지 못했다. 임채빈은 경륜계 변방으로 불리던 경북 출신이지만 경상권 전체와 충청권까지 규합할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90년대생 대표주자로 세대교체의 선봉장이 될 수도 있다.

박창현 발행인은 "기존 신인이 성장하는 과정과 현재 임채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라며 "점수와 인지도 위주의 소극적이고 뻔한 전개, 기수 중심의 문화를 실력으로 깨는 활약상은 벨로드롬의 혁명이자 팬들에겐 엄청난 청량감을 안겨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경륜의 구원투수이자 흥행 메이커로서도 큰 역할을 예상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정종진·김형완, 경륜경정 유튜브 출연

경륜스타 정종진(20기)과 김형완(17기)이 경륜경정 유튜브 채널 'SPEED CLUB'에 출연했다. 지난 주 공개된 영상에서는 두 선수의 취미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장 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형완은 "휴장 기간 중 대리운전을 6개월 정도 했다. 대리운전이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며 앞으로 술 마시면 행동을 조심해야겠고 느꼈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는 의정부에서 청라까지 손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손님이 차에 구토를 해 당황했던 에피소드도 공개했다. 정종진은 "거리두기로 수도권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 강원도에 7주 동안 체류하며 김포팀 선수들과 운동을 했다"고 했다. 31일 2편에서는 정종진 인생 최고의 경주와 경륜 데뷔 전 경험한 아르바이트 등의 이야기가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첫 경륜 심판 판정 참관회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기금조성총괄본부는 26일 광명 스피돔에서 '2021년 경륜선수와 함께하는 제1회 경륜 심판 판정 참관회'를 진행했다. 경륜선수를 대상으로 심판 판정 과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판정 절차 전반을 공개해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판 판정 참관회에는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 김유승(11기) 위원장과 이재일(14기), 정성훈(12기) 선수가 참가해 경륜 심판의 주요 업무를 소개받고 운영 장비와 착순 판정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종합심판실에서 경주를 관람하고 합의제 판정을 참관했다. 착순 판정용 영상장비에 대한 설명과 선수와 심판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다. 제2회 심판 판정 참관회는 4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14~16기 입상행진 경정 신예들의 반란

14기 이지은·15기 조승민 등 고배당 만들어
전문가 "유리한 코스·모터 배정 땐 노려볼만"

경정 재개장 후 급부상한 신예 선수들이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1시즌 경정은 지난 4회차(2월 24~25일)부터 비수도권 지점만 20% 입장객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휴장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경기력 저하가 우려됐으나 대부분의 선수들이 빠른 수면 적응력과 함께 매 회차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신예(14~16기) 선수들이 입상 행진을 펼치며 활약 중이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것은 14기 구본선(B2 30세)이다. 지난 4회차에 출전해 1, 2일차 모두 선두를 꿰차 2연승을 일궈냈고 수요 경주에서는 19.6배, 목요 경주에서는 28.1배의 배당을 안겼다. 6회차 목요일 7경주에서도 14기 최강자인 박원규(A1 28세)가 5코스에서 호쾌한 휘감기로 우승하며 쌍승식 11.6배를 기록하며 경정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진 8경주에서는 이지은(14기)이 올해 첫 2착 진입과 함께 45.4배를 기록하며 신예들이 기존 강자들의 들러리라는 인식이 깨지기 시작했다.

7회차 수요일 첫 경주에서는 15기 정세혁(B2 28세)이 선두로 나섰던 박설희(A1 3기 38세)를 역전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기염을 토했고 다음 경주인 2경주에서는 16기 전동욱(B2 30세)이 마수걸이 입상에 성공해 17.4배의 배당을 기록했다. 6경주에서는 15기 조승민(B2 29세)도 시즌 첫 우승에 성공하면서 35.5배를 낳았다. 목요 경주에서도 신예들의 입상 행진은 계속됐다. 목요일 7경주 2코스에 출전한 15기 정승호(B2 32세)가 깜짝 우승해 28.1배의 고배당이 형성됐다.

지난주 8회차에서도 바통이 이어졌다. 1일차 수요일 4경주 3번 정으로 나선 홍진수(B2 16기 28세)가 입상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윤영일(B2 2기 47세)과 손제민(A1 6기 39세)을 제치고 선두권에 올라 13.4배의 중배당이 나왔고, 다음 5경주에서는 14기 이휘동(B2 32세)이 5코스에서 휘감기로 선두를 꿰차는데 성공했다. 비록 3착에 그치긴 했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인 전력도 많았다.

임병준 쾌속정 예상분석 전문가는 "대부분의 신예 선수들은 선배 선수들에 비해 결정력이 부족하다 보니 순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으나 확실히 올해는 달라지고 있다"며 "최근 결과물이 약진의 방증이며 신예 선수들이 유리한 코스나 좋은 성능의 모터를 배정받은 상황이라면 노려볼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